

신용거래 몰린 바이오株... '바이든 勝'에 빛투족 기대감

바이오株 신용융자금액 비중 높아
잔고금액 상위 30개 중 13개 포함

바이든 승리, 보편의료 확대예고
진단키트 등 유망 바이오株 호재

미국 대통령 선거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끝나며 국내 제약·바이오주의 등락폭이 클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빛을 내 셀트리온과 씨젠 등 바이오주를 주로 담은 개인투자자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 신용거래를 통한 고금리 이자를 감내하며 바이오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만큼 기대수익률을 채운 후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 전망은 엇갈리면서 반대매매의 공포도 커지는 분위기다.

◆빛투, 바이오株에 몰렸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신용융자 잔고는 16조552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1일 16조원대로 떨어진 후 소폭 등락을 반복하며 꾸준히 16조원대를 유지 중이다. 연초와 비교하면 78% 증가한 수치다. 개인이 빛내서 투자하는 '빛투'는 여전히 고점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오주가 신용융자 금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코스콤체크단말기를 살펴보면 셀트리온은 지난 5일 결제일 기준 국내 주식 중 신용융자 잔고 금액

〈신용융자 잔고 금액 상위 15개 제약·바이오 종목〉

순위	시장구분	종목명	잔고금액(억원)	잔고율(%)
1	코스피	셀트리온	4088	1.29
2	코스닥	씨젠	4055	7.87
3	코스닥	셀트리온헬스케어	2732	2.16
4	코스피	신풍제약	1899	3.54
5	코스피	녹십자	1173	3.98
6	코스피	제넥신	1015	3.63
7	코스피	부광약품	989	5.06
8	코스피	에이치엘비	988	2.23
9	코스피	삼성바이오로직스	947	0.23
10	코스피	삼천당제약	886	8.65
11	코스피	셀트리온제약	873	2.39
12	코스피	일양약품	858	6.92
13	코스피	알테오젠	805	2.00
14	코스피	메드팩토	619	3.88
15	코스닥	바이넥스	586	8.33

*결제일 5일 기준.

/코스콤

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조사됐다. 셀트리온의 신용융자 잔고는 4088억원으로 4055억원을 기록한 씨젠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이 두 종목이 전체 신용거래의 약 5%를 차지한 셈이다. 진단키트주 열풍과 함께 셀트리온과 씨젠을 향한 관심도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신용거래를 하는 이들은 주가 하락 위험성에 대비해 우량주와 대형주를 중심으로 사들였다. 셀트리온헬스케어(2732억원), 삼성전자(2384억원), 카카오(2310억원), 현대차(1021억원), 신풍제약(189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바이오·언택트(비대면) 종목에 신용융자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잔고금액 상위 30개 종목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개 종목이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나타났다. 녹십자(1173억원)와 제넥신(1015억원), 부광약품(989억원), 에이치엘비(988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947억원) 등도 잔고 금액 순위 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한정 지을 경우 상위 10개 종목 중 8개가 바이오주였다.

신용공여율도 바이오주가 눈에 띄게 높았다. 셀트리온과 씨젠의 신용공여율은 각각 1.28%, 7.87%에 달했다. 씨젠의 경우 전체 거래 주식 중 7% 가까이 신용을 통해 거래됐다는 뜻이다. 제넥신(5.06%)과 부광약품(5.06%), 신풍제약(3.54%), 녹십자(3.98%) 역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바이든 勝(勝), 바이오 빛투족에 긍정적

바이든 후보의 미 대선 승리는 바이오 '빛투족'에게 희망적인 상황으로 분석된다. 오바마케어 등 보편 의료 서비스 확대를 예고하면서 관련 기업이 수혜를 톡톡히 볼 것이라 기대감이 제약·바이오 업종 투자심리를 달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의사를 밝히며 반발해 확정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당선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국내 바이오 기업에 직접적 수혜가 향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미국에서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고 처방약 수입을 확대할 경우 진단키트주로 세계에 명성을 떨친 국내 바이오 기업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당분간 바이오주의 등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두 후보 모두 약가인하 정책을 선호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와 유사한 수준의 약가를

원하는 트럼프 정책보다는 약가의 상승을 제한하는 바이든 정책이 바이오 업계에 조금 더 나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공보험 활용 증가로 인해 의약품 가격이 저렴한 국산 바이오시밀러 수출이 확대될 것이고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도 기술수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기적 투자성향이 강한 신용거래 고객에게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금리 평균은 연 8% 정도다. 보통 일주일만 이용해도 연 6~7%를, 60일을 넘기면 9% 이상을 내야 한다. 금리가 높은 만큼 이자 이상의 수익만 나면 빠져나오려는 경향이 강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6개월 이상 장기 대출을 하는 신용거래 고객은 정말 극소수"라며 "빠르면 일주일 내, 늦어도 한 달 안에 차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단기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장기적 전망은 물음표가 나오는 중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 등 일부 코스닥 기업의 경험치 미숙과 기약 없는 신약 개발 이슈에 투자자들도 신물이 나는 중"이라며 "바이든의 약가 정책이 국내 바이오주 열풍을 주도할 재료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中 광군제 특수 잡아라... 화장품株 주목

株라쿨라의 종목

코리아나 등 3종

中 소비심리 회복 K-뷰티 수요급증
판매증가로 4분기 실적개선 기대감

중국 광군제(光棍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며 직접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에 주목하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개막하는 올해 광군제는 판매 기간을 지난해보다 3일 늘려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적이 감소했던 국내 화장품 업체엔 수혜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소비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며 K-뷰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화장품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리서치알유는 9일 보고서에서 광군

절 수혜 종목들로 코리아나, 한국화장품제조, 코스메카코리아 등 3곳을 꼽았다. 해당 종목들의 지난해 10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와 광군제 당일 전까지의 고가를 비교할 경우 각각 10.7%, 9.9%, 8.9%씩 올랐다. 올해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광군제 매출액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광군제 매출을 중국 소비 수요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평가한다. 처음 행사가 열린 2009년 광군제 매출액은 0.5억 위안(약 84억원)에 불과했지만 2016년엔 1207억 위안(20조 4000억원)까지 늘더니 지난해는 2684억 위안(45조 47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광군제도 역대 최고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군제를 주관하는 알리바바 그룹은 광군제 1차 행사(11월 1~3일)에서 40분 만에 화장품 매출 100억 위안(약 1조 6969억)을 돌파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50% 증가한 수치다.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후는 사전 예약판매 11분 만에 지난해 전체 판매액을 초과하기도 했다.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이충헌 리서치알유 연구원은 "화장품 업종의 3분기는 계절적 비성수기에 해당하지만 매년 11월 광군제를 통해 판매액이 증가하며 4분기 실적개선에 주에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국내 1세대 화장품 기업인 한국화장품제조는 유럽 로레알, 랑콤, 인터코스와 기술 제휴 체결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 연구원은 "계열사와 손자회사의 실적 개선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상반기 광군제 제품 수주계약을 따내며 연말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태화 기자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공급일정〉

사업유형	공급지역(시·군·구)	공급호수	신처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청년 매입임대	38	691	11.9~11.1	12.11	2020.12~
신혼부부 매입임대 I	64	1,626	11.12~11.16	12.18	2020.12~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52	1,724	11.12~11.16	12.18	2020.12~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041가구 모집

LH, 시세 40~50% 임대료로 제공
청년 619가구, 신혼부부 335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4차 매입임대주택 4041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모집물량은 청년 619가구, 신혼부부 3350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184가구, 수도권 외 지역에 1857가구가 공급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하며, 보증금 100~200만원, 시

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I 유형(1626가구)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II 유형(1724가구) 등이 공급된다.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모집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3%에서 2.5%로 낮아짐에 따라 월임대료 2만원(중전 2만 5000원)을 추가 납부하면 보증금 1000만 원을 낮출 수 있다. /정연우 기자 yw964@

유진투자증권 리자드 스텝다운 ELS 공모

유진투자증권이 오는 11일 오후 2시까지 리자드 스텝다운 주가연계증권(ELS) 1종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제374회 ELS'는 3년 만기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코스피(KOSPI) 200지수, 홍콩항셱지수(HSI),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조기상환 및 만기상환, 리자드상환 시 수익률은 세전 연 3.7%로 모두 동일하다.

'제374회 ELS'는 스텝다운 구조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및 만기상환 기회가 제공된다. 우선, 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증가가 최초기준

가격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개월) 이상이면 조기상환이 이뤄지고, 만기평가일에 65%(36개월) 이상이면 만기상환 조건이 충족돼 세전 11.1%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노낙인(No Knock-in) 구조이며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일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하이투자증권

연 4.5% 수익 ELS 1종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13일 오후 1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1종을 총 5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HI ELS 2325호'는 코스피(KOSPI) 200지수, 홍콩항셱지수(HSI), 유로스

톡스(EUROSTOXX) 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증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3.50%(연 4.50%)의 수익을 지급한다.

/송태화 기자